

스웨덴

2003. 9

박영곤

(ygpark@kiep.go.kr)

I. 일반개황

□ 자연지리

- 국토면적: 449,964 km²(한반도의 2배)
- 인 구: 891만명(2001년 12월 기준)
- 기 후: 북극권 온대성 기후(여름: 15~17도, 겨울: -1~-4도)
- 시 간 대: GMT보다 1시간 빠름
한국과의 시차: 하계(-7시간), 동계(-8시간)

□ 행 정

- 공식국명: 스웨덴 왕국(The Kingdom of Sweden)
- 수 도: 스톡홀름(Stockholm, 인구 75만명)

□ 정 치

- 정부형태: 입헌군주제하의 내각책임제
- 국가원수: 칼 구스타브 16세(Carl XVI Gustaf) 국왕
- 의회형태: 단원제(의원 349명)
- 수 상: 여란 페르손(Goran Persson)
- 주요정당: 사회민주당

□ 사회·문화

- 민 족: 북구 게르만족(95%), 랍족, 세미족
- 언 어: 스웨덴어
- 종 교: 루터교(88%)
- 국 경 일: 6월 6일
- 도 량 형: 미터법

□ 한국과의 관계

- 국교수립: 1959년 3월 11일
- 협정체결: 무역의정서(1967), 사증면제 협정(1969), 섬유 협정(1979), 이중과제방지 협정(1981), 경제산업기술 및 과학협력 협정(1985), 투자보장 협정(1995)

II. 주요 경제지표

1. 최근 경제동향

	단위	1999	2000	2001	2002
인구	백만명	8.9	8.9	8.9	8.9
GDP(명목)	십억달러	251.4	239.6	219.6	240.9
1인당GDP(명목)	달러	28,351	26,990	24,723	27,087
실질GDP증가율	%	4.3	4.5	1.4	1.9
소비자물가상승률	%	0.5	1.0	2.4	2.2
산업생산증가율	%	2.5	6.9	-0.1	-0.6
수출	백만 달러	84,767	86,879	76,473	81,442
수입	백만 달러	68,717	72,914	63,890	66,792
경상수지(GDP대비)	%	4.2	3.9	3.9	4.2
대미환율(코로나)	달러대비	8.27	9.17	10.32	9.71

자료: DRI · WEFA. World Overview. June 2003.

2. 향후 경제전망

항목	단위	2003	2004	2005
경제성장률	%	1.5	2.2	2.4
소비자물가상승률	%	2.2	1.6	1.8
산업생산증가율	%	1.5	3.5	2.9
경상수지(GDP대비)	%	4.1	4.2	5.1
환율(코로나)	달러대 비	7.98	7.55	7.22

자료: DRI · WEFA. World Overview. June 2003.

3. 대외경제관계

가. 품목별 수출입

(단위: 백만 유로)

교역품목	수출		수입	
	2002	2003(1~2월)	2002	2003(1~2월)
0. 식품 및 산동물	2,063	315	4,436	709
1. 음료 및 담배	558	83	789	107
2.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5,000	802	2,389	361
3. 에너지	2,520	453	6,165	1,509
4. 동식물성유지 및 왁스	178	33	151	33
5. 화학물 및 관련제품	9,197	1,639	7,170	1,207
6. 재료별 제조제품	17,885	3,023	9,934	1,724
7. 기계 및 운수장비	35,775	5,651	27,232	4,335
8. 기타 제조제품	7,963	1,277	9,309	1,510
9. 기타	4,757	847	2,587	458
합계	85,897	14,126	70,163	11,959

자료: Eurostat. External and intra-European Union trade. July 2003.

나. 지역별 수출입

(단위: 백만 유로)

	2001	2002
< 수출 >		
EU	46,132	46,404
독일	8,761	8,508
덴마크	4,817	5,003
핀란드	4,404	4,663
네덜란드	4,131	4,443
프랑스	4,230	4,321
미국	8,918	9,862
노르웨이	7,250	7,581
일본	2,480	2,076
< 수입 >		
EU	46,267	46,258
독일	11,793	12,413
덴마크	5,441	5,913
영국	5,857	5,718
네덜란드	4,305	4,298
프랑스	4,362	3,638
노르웨이	5,694	5,283
미국	4,159	3,729
일본	1,914	1,847

자료: Eurostat. External and intra-European Union trade. July 2003.

다. 스웨덴의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투자

□ 스웨덴의 ODI와 FDI 규모(실행기준)

(단위: 백만 달러)

	1990-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해외직접투자(ODI)	6,914	4,665	12,648	24,369	21,927	40,578	7,170
외국인투자(FDI)	5,488	5,077	10,968	19,564	60,850	23,367	12,734

자료: United Nations. *World Investment Report*. 2002

□ 국별 해외직접투자

(단위: 백만 스웨덴 크로나)

국 가	2000	2001
프랑스	3,956	-3,918
영국	9,573	9,745
독일	32,859	10,311
네덜란드	-5,275	496
덴마크	46,951	-10,934
아일랜드	50,019	18,383
노르웨이	32,858	4,729
미국	31,356	24,707
일본	1,669	1,450
EU	190,326	10,181
합 계	371,654	74,062

자료: 日本貿易振興會, ジェトロ投資白書, 2002年版.

□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백만 스웨덴 크로나)

국 가	2000	2001
프랑스	2,537	10,715
영국	18,057	-19,214
독일	17,646	26,337
네덜란드	6,659	16,168
덴마크	2,160	13,163
아일랜드	48,603	22,364
노르웨이	18,671	6,836
미국	25,721	183
일본	9,163	92,371
EU	98,193	9,326
합 계	214,094	132,5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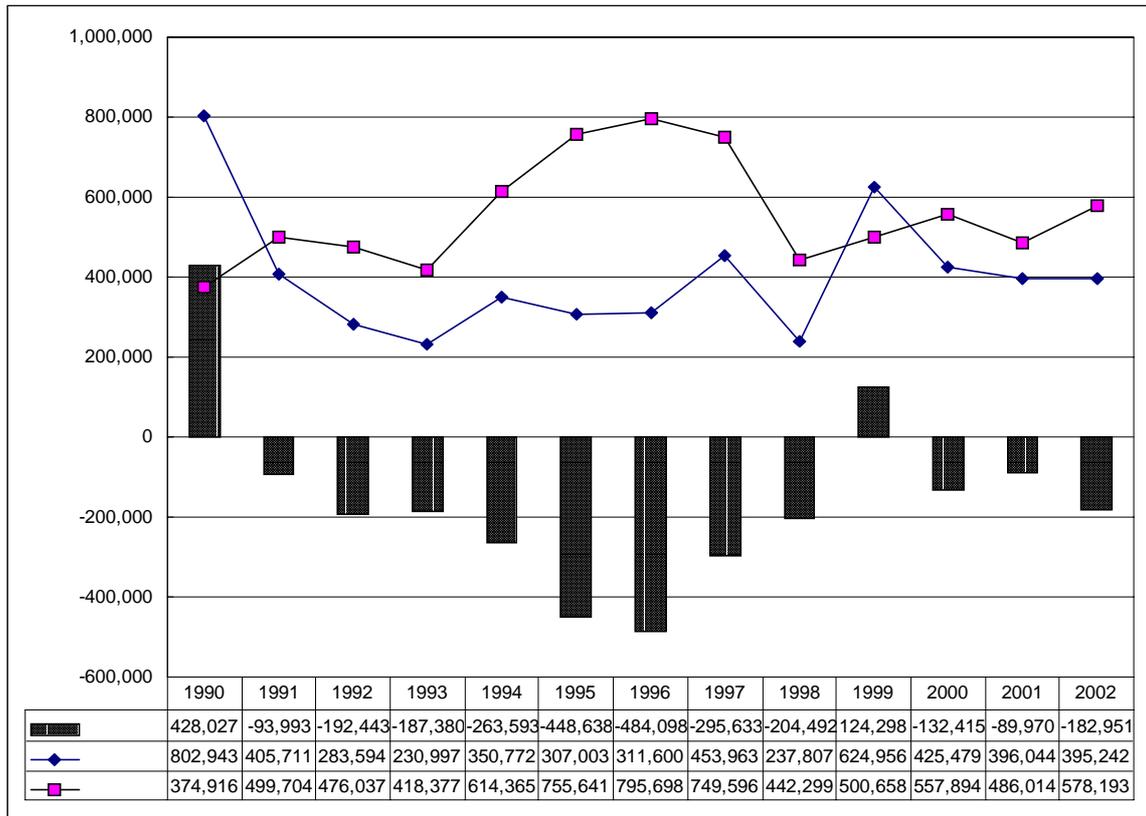
자료: 日本貿易振興會, ジェトロ投資白書, 2002年版.

4. 한·스웨덴 경제관계

가. 교역

□ 연도별 수출입 추이

(단위: 천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 품목별 수출입 내역(HSK 2단위, 금액순)

<수 출>

(단위: 천 달러, %)

순 위	품목	2002		2003(1~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전기기와 그 부분품	131,514	-5.3	72,862	-4.2
2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901,74	9.1	64,331	37.3
3	선박과 수상구조물	49	9.9	50,096	102,147.9
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46,057	-5.3	33,059	23.7
5	고무와 그 제품	29,266	30.5	22,219	37.2
6	메리야스 및 뜨개질편물의 의류와 그 부분품	26,285	-4.7	14,954	6.8
7	플라스틱 및 그 제품	17,970	23.5	12,772	30.8
8	철강	6,100	-7.8	8,659	106.5
9	의류와 그 부속품	9,755	-27.6	7,147	18.9
총수출		395,242	-0.2	309,713	39.1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수 입>

(단위: 천 달러, %)

순 위	품목	2002		2003(1~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186974	34.4	110008	14.1
2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103224	79.1	90654	68.5
3	철강	49091	2.0	38424	33.6
4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44716	12.3	29027	27.8
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46774	-6.8	24877	0.5
6	의료용품	22486	7.8	16014	20.4
7	지와 판지, 제지용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12091	39.5	12380	76.2
8	플라스틱 및 그 제품	14586	18.5	11174	33.5
9	비금속재의 공구, 도구, 칼붙이, 스푼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16306	17.6	10244	5.7
총수입		578193	19.0	387601	24.4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나. 투자

□ 한국의 對스웨덴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건, 천 달러, 신고수리기준)

2000		2001		2002		2003(1-6월)		누계 (1968~2003.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	30	0	0	1	1,650	1	8,470	6	30,25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연보 2003.

□ 스웨덴의 對韓 투자 추이

(단위: 건, 천 달러, 신고수리기준)

1998		1999		2000		2001		2002.1~9		총누계 (1962~2002.9)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	202,494	3	117,913	4	12,779	2	22,357	2	131,197	57	566,321

자료: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동향, 2002. 9.

III. 경제현안

1. 스웨덴의 경제현안

가. 개요

□ 스웨덴 경제는 전세계적인 경기둔화에 따라 2001년부터 경기둔화 양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여타 서유럽국들보다는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해 오고 있음.

- 스웨덴은 1998~2000년 평균 4.2%의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한 이후 전세계적인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2001년 1.4%, 2002년 1.9%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그러나 1%이하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던 대다수의 서유럽국들보다는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표 참조).

<표> 스웨덴의 GDP 성장률

(단위: 전년대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GDP	4.3	4.5	1.4	1.9	1.3	2.5	2.5
민간소비	3.8	5.0	0.2	1.3	1.9	2.6	2.3
투자	8.2	6.6	0.8	-2.5	-1.5	3.4	3.3
수출	7.4	11.3	-0.8	0.4	3.4	5.9	7.4
수입	4.9	11.5	-3.5	-2.7	3.4	6.4	7.9

주: 2003년부터는 전망치
자료: DRI-WEFA

- 이러한 성장세는 2003년 1/4분기에도 이어져, 1/4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대비 2.2%, 전분기대비 0.6%를 기록하였음.

○ 이는 경기둔화 양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수출과 투자의 감소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은데다, 유로지역 회원국과 달리 스웨덴은 비EMU국으로서,

유로화의 가치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적었기 때문임.

- 또한 스웨덴중앙은행(Riksbank)은 경기부양을 위해 6월과 7월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하여 현재 2.75%를 유지하고 있음. 이는 2.0%의 ECB의 기준금리보다 여전히 0.75%포인트 높은 수준이어서, 향후에도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

□ 견실한 성장세를 보였던 스웨덴 경제도 2/4분기부터는 세계경제와 EU경제가 지속적으로 경기둔화세를 보임에 따라 다소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음.

- 특히 스웨덴의 주요 수출시장인 유로지역에서의 수요감소는 스웨덴 전체 시장 특히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6월 실업률은 전년대비 0.8% 상승한 4.8%로 여타 서유럽국들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지만 전년대비 0.8%포인트 증가한 것임.

- 또한 여타 유로지역 회원국과 달리 견실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스웨덴 코로나화의 가치는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7월말 현재 스웨덴 크로나의 對유로화 환율은 9.18 크로나이이며, 향후 2005년 또는 2006년으로 기대되고 있는 EMU 가입시점에서는 환율이 9.00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음.

- 유로지역 특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최근 경기침체 가능성은 스웨덴의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유로지역뿐 아니라 미국의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세계경제의 회복지연도 스웨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외부환경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측면은 이라크 전쟁이 종료됨에 따라 유가가 안정적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스웨덴의 인플레이션 위험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것임(6월 전월대비 0.3% 하락).

□ DRI-WEFA는 스웨덴 경제가 2003년과 2004년에도 여타 유로지역 회원국보다는 높은 1.5%, 2.2%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스웨덴의 경기회복에 가장 큰 위험요인은 유로지역과 미국경제의 잠재적인 경기침체요인들과 국내적으로는 최근의 세금인상으로 인한 소비지출 감소 가능성임.
- 정부의 경기부양과 관련하여서는, 재정정책은 2001년과 2002년 확대재정정책을 시행하여 올해부터는 긴축재정정책으로 선회하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정부지출이나 세금감면을 통한 경기부양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
- 이에 반해 통화정책은 아직 금리수준이 유로지역보다 낮은 상황이어서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하는 상황임.

나. 주요 경제현안

1) EMU 가입반대

□ 스웨덴의 향후 경제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이슈는 EMU 가입여부임.

- 스웨덴은 1999년 EMU 출범당시에도 가입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으나 국민들의 반대여론과 정책상의 이유로 가입을 유보하였음.

□ 2003년 9월 14일에 실시된 EMU 가입에 대한 국민투표에서도 반대 강경론자들의 영향으로 부결되었음.

- 국민투표결과 540만명의 유권자중 56.1%가 EMU 가입에 반대하였으며, 41.8%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남.
- 더욱이 EMU 가입을 선도하였던 안나 린드 외무장관이 국민투표가 실시되기 한주전 피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결과 부결됨에 따라 스웨덴내 EMU 가입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음.

□ 실제 국민투표가 실시되기 이전에도 국민투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음.

- 그 동안 EMU 가입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2002년말까지는 찬성여론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최근 유로지역의 경기둔화 지속, 영국의 EMU 가입 불확실, 그리고 스웨덴내 가장 큰 노동조합인 LO의 EMU 가입 반대 등으로 반대여론도 상당수 존재하였음.
- 이에 대해 페르손 수상은 스웨덴이 가장 중요한 무역파트너들과의 통화통합을 무시하고 아웃사이더로 남을 수 없으며 EU내 스웨덴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EMU 가입이 필요하다고 국민들을 설득시

키고 있으나 역부족인 상황이었음.

- 이번 국민투표 부결로 2006년에 EMU에 가입할 계획이었던 스웨덴 정부의 계획은 무산되었음.

□ 이번 EMU 가입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 국내적으로는 페르손 총리의 정치적 기반에 침해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국외적으로는 EU내 스웨덴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 특히 로마노 프로디 EU 집행위원장은 스웨덴의 국민투표 결과 EU내 스웨덴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고 밝혔음("Sweden would lose influence in Europe").

□ 이 외에도 이번 스웨덴의 국민투표 결과는 EU 회원국이면서 스웨덴과 같이 EMU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영국과 덴마크의 향후 EMU 가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영국에서는 토니 블레어 총리가 EMU 가입을 적극적으로 선도하고는 있으나 유로지역의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반대여론이 강한 상황인데다 이번 스웨덴의 EMU 가입반대가 반대여론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높음.

- 덴마크에서는 지난 2000년 9월 EMU 가입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53% 반대로 부결된 바 있으나, 최근 크로네의 강세로 인해 수출감소가 이어지면서 2003년 7월 여론조사에서는 EMU 가입에 대해 61%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스웨덴의 EMU 가입에 대한 국민투표의 결과가 경제성장보다는 경제안정을 중시하는 반대여론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음.

□ 향후 스웨덴이 EMU 회원국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스웨덴의 거시경제구조

가 변화될 것임.

- 특히 환율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며, 역내 거래비용이 줄어들고, 가격투명성이 증대되며, 보다 낮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EMU가입에 따른 통화통합은 다음과 같은 문제도 안고 있음.

○ 단일환율로 인해 그동안 스웨덴 당국에 의해 조율되던 스웨덴 경제만을 위한 통화정책실행이 불가능하게 됨. 즉 스웨덴 경제 자체만의 문제에 대한 정책대응이 불가능해지며, ECB의 금리가 스웨덴의 기준금리가 됨.

○ 또한 ECB가 스웨덴의 EMU 가입초에는 신뢰성을 위해 인플레이션 억제제를 위한 정책실행을 강요하려고 할 것이며, 이는 스웨덴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임.

2) 구조개혁

□ 스웨덴은 1980년대 중반과 1990년대초 저조한 생산성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바 있으며, 이후 거시경제정책의 조정메커니즘과 세금제도의 개혁, 기업구조의 개선, 탈규제화 등 구조개혁을 통해 스웨덴 경제를 되살린 바 있음.

-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에서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EU 평균수준보다 높은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향후 고령화사회가 예상되고 있는 스웨덴에서는 세금제도, 노동시장, 연금제도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한 상황임.

- 스웨덴은 2010년쯤에는 노인의존율(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ESCB (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s)의 추정치에 따르면 동 비율은 2002년 말 현재는 27%이지만, 2035년에 35%, 2050년에는 4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현재 세금 및 연금제도와 노동시장에 대한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향후 노령인구증가로 인해 고령화와 관련된 정부지출은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는 사회인프라, 교육, R&D 등 국가성장을 위한 투자나 정부지출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 따라서 스웨덴 정부는 향후 인구고령화로 인한 재정적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흑자를 충분히 늘리고 노동참가율을 높이며, 기존의 연금제도를 개혁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2. 한·스웨덴 경제협력 현황

가. 개요

□ 스웨덴은 한국전 당시 병원단 파견을 시초로 하여 한국과 교류를 맺은 이후 1959년 3월에 한국과 정식수교를 맺었으며, 그 이후 경제협력 관계를 확대해 오고 있음.

- 1999년에는 한국과의 수교 40주년을 기념하여 상호통상장관 교환방문을 통해 경제 및 통상협력강화, 문화교류행사 등을 확대해 왔으며, 2000년 9월에는 뉴욕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이어 스웨덴 국회의장의 방한이 있었음.

○특히, 2000년 12월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스웨덴 방문이 있었으며, 2001년 5월에는 스웨덴 수상 여란 페르손이 EU 의장으로서 한국을 방문하여 양국간 경제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 한국과 스웨덴의 교역은 여타 EU 회원국과의 교역에 비하면 저조한 편이나, 1990년대 동안 약 10억달러 상당의 교역은 유지하였음.

- 양국간 교역에 있어 한국은 1991년부터 지속적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해 오다가 1999년 화물선 및 탱커 등 선박의 수출에 힘입어 1억2,429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기도 하였음.

○그러나 2000년부터는 다시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2002년에는 1억8,295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음.

○2003년부터는 무역적자폭이 줄어들고 있으며, 7월말 현재까지 무역적자는 7,788만 달러를 보이고 있음.

□ 양국의 교역구조는 상호보완적인 경쟁구조로 향후 교역확대 여지가 무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스웨덴은 철강, 비행기, 자동차 등에 비교우위가 있으며, 한국은 전자제품, 타이어 및 튜브, 양말 등에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의 對스웨덴 주요 수출품목은 휴대폰 등 무선통신기기부품과 액정 TV 등 전기기기와 자동차 및 선박이며, 특히 IT 관련제품의 수출은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스웨덴의 수입구매력 감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이는 스웨덴이 핀란드와 함께 유럽의 정보통신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정보사회화 수준이 전세계에서 최상급이며, 에릭슨(Ericsson) 등 전세계적인 IT 기업 등을 보유한 데 따른 것임.

- 스웨덴으로부터의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계류, 산업기계, 계측기 등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 안테나, 계측기 등 통신기기와 건설 및 광산장비 등이 수입되고 있음.

□ 스웨덴의 對韓투자는 1962년부터 2002년 9월까지 총 57건에 5억6,632만 달러로 저조한 편이며, 한국의 對스웨덴 투자도 1962년부터 2003년 6월까지 총 6건에 3,025만 달러 상당으로 스웨덴의 투자보다 더 저조한 실정임.

- 스웨덴의 對韓투자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2002년에도 1억3,119만 달러 상당을 투자하였음.

○ 2002년에 한국에 투자한 스웨덴 기업으로는 AB Electrolux, Gambro AB, Wallenius Lines AB임.

- 스웨덴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기업으로는 삼성전자, 대우전자, LG전자 등 전자업체와 현대자동차 등 4개사가 스웨덴에 진출해 있음.
- 對스웨덴 투자에 있어 유의할 점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내국인 투자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지만,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제한하고 있다는 것임.
 - 축구 도박업, 경마 도박업, 복권업, 주류 소매업, 의약품 소매업 등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가 금지되며, 항공운송업, 국내 운항권, 해상운송업, 연안 해운업 등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군장비, 방송업은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이 외에도 환경과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부과하고 있음.
- 그리고 스웨덴은 여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같이 정부가 지정한 미개발 지구나 낙후된 북부지역에 대한 투자시에는 금융 및 기술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나. 주요 통상현안

- 스웨덴은 자유무역주의를 따르고 있으며, 해외시장 의존도도 높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특혜한 수입규제 정책은 없는 국가임.
 - 또한 스웨덴은 자유무역지대로 스톡홀름(Stockholm), 예테보리(Gothenburg), 몰뫼(Malmo), 노르크핀(Norrköping), 알랜다(Arlanda)에 자유무역항을 설치하여 통관절차 없이 교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한국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수입규제는 없으며 다만, EU가 현재 한국에 대해 조선, 철강, 자동차 관련 교역불균형 품목에 대해 통상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는데 대해 스웨덴도 참여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스웨덴으로의 수출에 있어 수입규제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비관세 장벽은 존재하고 있음.
 - 각종 식품류, 농수산물, 육류에 대하여 엄격한 보건위생 및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현지의 규격인증인 SEMKO 인증은 법적으로 강제된 것은 아니나 수출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임.
 - 무엇보다 스웨덴은 여타 EU 회원국들에 비해 환경관련 규제가 엄격하다는 것도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1995년 환경관련법규를 강화하여 환경관련 교역에 있어 특별한 규제를 가하고 있으나, 아직 한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음.